

노인의 직업활동 참여 실태 및 직업환경 인식에 관한 연구

전 지 원* (숙명여자대학교 가정·아동복지학부 강사)

박 미 석 (숙명여자대학교 가정·아동복지학부 교수)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 사회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일할 능력이 있으며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들의 직업활동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인이 지닌 활동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는 제한적이며,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관련 정책 및 서비스 개발도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직업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직업활동 참여 현황과 직업환경에 대한 지식 및 요구도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노인의 지속적인 직업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로부터의 보호 대상이 아닌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능동적인 주체로서 생활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유의표집 방법을 사용하여 서울시 거주 60세 이상 남녀 취업노인 300명의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들은 현재의 직업에 종사한 기간이 약 11년이었으며, 근무시간은 주당 약 53시간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은 약 72세까지 직업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였으며, 계속 직업활동에 참여하겠다는 의견도 약 83%에 해당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약 43%는 종일제 근무형태를 희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노인이 원하는 직업활동은 단순히 노년기 여가시간 활용이라는 소극적 차원이 아닌 명실 공히 연령과 상관없이 생활관리의 한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노인이 사회의 유용한 인적자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열망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라 하겠다.

둘째, 조사대상자들의 직업환경에 대한 지식은 평균 1.62점(3점 만점)으로 중간수준이었다. 조사대상자들의 직업환경에 대한 지식은 교육수준, 월평균 소득, 경제수준 인지도, 고용형태, 현재 직업의 종사기간, 향후 희망하는 근무형태에 따라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셋째, 조사대상자들의 노인 직업활동 지원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는 평균 3.94점(5점 만점)으로 이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였다. 특히, 조사대상자들은 '노인의 취업정보 접근성을 높임'과 '유급자원봉사활동의 확대'에 대해 가장 높은 요구도를 나타냈다. 그 외 '정부의 노인인력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 유도' - '노인 적합 직종 개발 및 법제화' - '분야별 노인 취업프로그램의 개발' - '국가의 노인고용 촉진 장려금 확보' - '임금 피크제 실시' - '노인 채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